

보도	2026.6.18.(목) 석간	배포	2026.6.17.(수)		
담당부서	은행리스크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팀 장	김웅겸	(02-3145-8330)
		담당자	선 임	최영식	(02-3145-8334)

'26.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[잠정]

1. 개요

□ '26.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)은 **0.61%**로 전월말(0.56%) 대비 **0.05%p 상승** [전년 동월말(0.57%) 대비 **0.04%p 상승**]

○ '26.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*(2.9조원)은 전월(2.7조원) 대비 **0.2조원 증가** 하였으며, 연체채권 정리규모(1.6조원)는 전월(4.3조원) 대비 **2.7조원 감소**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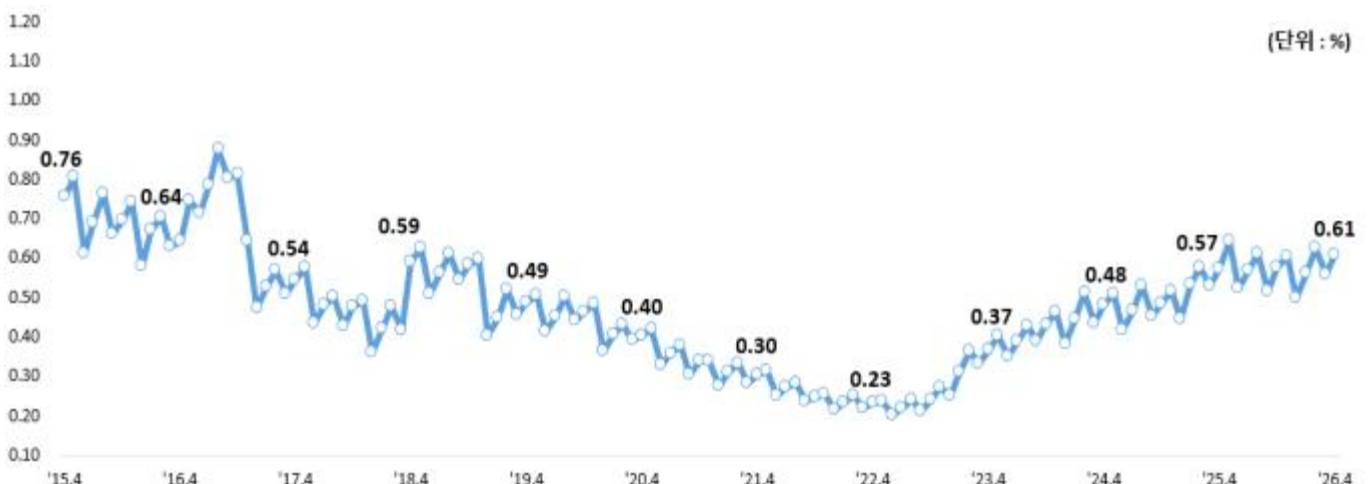
	('24.4월)	('25.4월)	('25.11월)	('25.12월)	('26.1월)	('26.2월)	('26.3월)	('26.4월)
* 신규 연체채권 규모(조원):	2.6	2.9	2.6	2.4	2.8	3.0	2.7	2.9
연체채권 정리규모(조원):	1.5	1.7	1.9	5.1	1.3	1.3	4.3	1.6
연체채권 증감규모(조원):	+1.1	+1.2	+0.7	△2.7	+1.6	+1.7	△1.6	+1.3

** 통상 은행이 분기말에 상매각 규모를 확대함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

○ '26.4월중 신규연체율('26.4월중 신규연체 발생액/'26.3월말 대출잔액)은 **0.12%**로 전월(0.11%) 대비 **0.01%p 상승** [전년 동월(0.12%)과 유사]

* 신규연체율(%): ('25.4) 0.12 → ('25.12) 0.10 → ('26.1) 0.11 → ('26.2) 0.12 → ('26.3) 0.11 → ('26.4) 0.12

원화대출 연체율 추이('15.4월~'26.4월)



※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,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

2. 부문별 현황

- (기업대출) '26.4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(0.74%)은 전월말(0.68%) 대비 0.06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68%) 대비 0.06%p 상승]
 - 대기기업대출 연체율(0.22%)은 전월말(0.22%)과 유사 [전년 동월말(0.13%) 대비 0.09%p 상승]
 - 중소기업대출 연체율(0.90%)은 전월말(0.81%) 대비 0.09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83%) 대비 0.07%p 상승]
 - 중소기업 연체율(0.98%)은 전월말(0.88%) 대비 0.10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89%) 대비 0.09%p 상승]
 -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0.78%)은 전월말(0.71%) 대비 0.07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74%) 대비 0.04%p 상승]
- (가계대출) 가계대출 연체율(0.42%)은 전월말(0.40%) 대비 0.02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43%) 대비 0.01%p 하락]
 - 주택담보대출 연체율(0.30%)은 전월말(0.29%) 대비 0.01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30%)과 유사]
 -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신용대출 등)의 연체율(0.83%)은 전월말(0.76%) 대비 0.07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86%) 대비 0.03%p 하락]

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구 분	연체율 시계열 ('13.12월~'26.4월)	'24.4말	'25.4말 (A)	'26.1말	'26.2말	'26.3말 (B)	'26.4말 (C)	증감	
								전년동월 (C-A)	전월 (C-B)
기업대출		0.54	0.68	0.67	0.76	0.68	0.74	+0.06	+0.06
대기업		0.11	0.13	0.13	0.19	0.22	0.22	+0.09	-
중소기업		0.66	0.83	0.82	0.92	0.81	0.90	+0.07	+0.09
중소법인		0.70	0.89	0.89	1.02	0.88	0.98	+0.09	+0.10
개인사업자		0.61	0.74	0.71	0.78	0.71	0.78	+0.04	+0.07
가계대출		0.40	0.43	0.42	0.45	0.40	0.42	△0.01	+0.02
주택담보대출		0.26	0.30	0.29	0.31	0.29	0.30	-	+0.01
가계신용대출등		0.79	0.86	0.84	0.90	0.76	0.83	△0.03	+0.07
원화대출계		0.48	0.57	0.56	0.62	0.56	0.61	+0.04	+0.05

*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

3.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

- '26.4월말 연체율(0.61%)은 신규연체 발생 증가(+0.2조원) 및 연체채권 정리 감소(△2.7조원) 등에 따라 전월말(0.56%) 대비 +0.05%p 상승

* 구분[% , %p]	'25.4	'25.5	'25.6	'25.7	'25.8	'25.9	'25.10	'25.11	'25.12	'26.1	'26.2	'26.3	'25.4
연체율	0.57	0.64	0.52	0.57	0.61	0.51	0.58	0.60	0.50	0.56	0.62	0.56	0.61
전월 변동	+0.04	+0.07	△0.12	+0.05	+0.04	△0.10	+0.07	+0.02	△0.10	+0.06	+0.06	△0.06	+0.05

※ 통상 분기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익월 다시 상승하는 경향

- 중동 상황 여파에 따른 고물가·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, 시장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,
 - 연체율 및 신규연체 발생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은행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는 한편,
 - 연체 우려 취약차주 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